

# '100승 3수' 류현진... 최정·추신수 '큰 산' 만난다

오늘 SSG와 홈경기 선발 등판 12년·11년 만에 '투타 맞대결' 류 "최정 가장 상대하기 싫어"

KBO리그 100승에 다시 도전하는 국내 최고 투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이 KBO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최정(37), 가장 성공한 코리안 타자 빅리거 추신수(41·이상 SSG 랜더스)와 맞선다.

류현진은 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SSG와 홈 경기에서 시즌 7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앞선 6경기에서 류현진은 1승 3패 평균자책점 5.91로 고전했다.

4월 11일 잠실 두산 베어스에서 한국복귀 후 첫 승리이자 KBO 개인 통산 99승째를 거둔 뒤에는 아홉수 맞인지 두 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만 당했다. '100승 3수'에도 걸끄러운 타자들과 마주해야 한다. 특히 최정, 추신수와 맞대결이 흥미롭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2013년)하기 전 '가장 상대하기 싫은 타자'로 꼽은 선수가 최정이었다. 최정은 류현진을 상대로 58타수 21안타(타율 0.362), 4홈런을 쳤다.

최정은 "예전에도 류현진의 구위는 무시 무시했다. '이번에는 이런 공을 던지겠지'라고 예상한 게 몇 차례 맞아떨어져 상대

타율이 오른 것"이라며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구종을 늘려 더 까다로운 투수가 됐다. '최정이 류현진에게 강했다'라는 언급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자신 없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최정은 올시즌 홈런 공동 1위(11개), 타점 3위(27개), OPS(출루율+장타율) 1위(1.072)에 오르는 등 무시무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24일 롯데 자이언츠 이인복을 상대로 개인 통산 468호 이치를 그려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의 KBO 통산 홈런 기록(467개)을 넘어섰고, 28일 kt wiz 문용의를 공략해 만루포를 쏘아 올리며 통산 홈런 기록을 469개로 늘렸다.

류현진과 최정이 맞대결하는 건 2012년 8월 23일 인천 경기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류현진은 7과3분의2이닝 8피안타 5실점(2자책)로 패전 투수가 됐다. 최정은 류현진을 상대로 희생플라이를 포함해 2타수 1안타 1사구 1타점을 올렸다. 2013년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은 11년 동안 빅리그에 머물며 186경기에 등판해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7로 활약했다. 이 기간에 한국인 빅리거와의 투타 대결도 벌였다. 선배 추신수와 의대결은 미국 메이저리그도 주목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입성한 2013년 7월 28일 당시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추신수와 맞

대결해 2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막았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내줬지만, 이후 1루 땅볼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류현진과 추신수의 투타 대결은 펼쳐지지 않았다. 2024년 KBO리그에서 다시 투타 대결 기회가 왔다.

류현진과 추신수는 KBO리그에서는 처음 맞붙고 메이저리그 처음이자 마지막 대결 이후 11년 만에 투수와 타자로 상대한다.

부산고를 졸업한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미국으로 건너간 추신수는 고된 마이너리그 생활을 견디고 2005년 빅리그에 데뷔했다. 이후 2020년까지 메이저리그를 누비며 1652경기에서 타율 0.275(608타수 167안타), 218홈런·78타점·157도루를 올렸다. 출전 경기·안타·홈런·타점 모두 코리안 빅리거 최다 기록이다. 2021년 SSG와 계약하며 한국 무대로 온 추신수는 2024시즌이 끝난 뒤 은퇴한다. 류현진과 추신수의 투타 대결을 볼 기회는 올해뿐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메이저 리그에서 돌아온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이 24일 2024 KBO리그 프로야구 kt wiz와의 경기에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류현진이 30일 SSG와의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될 경우 KBO리그에서 개인 통산 100승 기록을 달성한다. 연합뉴스

## 16호골 터졌지만... '팀 패배'에 웃지 못한 손흥민

'북런던 더비' 아스널에 2-3敗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침묵을 깨고 시즌 16호 골을 터뜨리기도 웃지 못했다.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는 안방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 패배로 4위 탈환 가능성이 가물거물해졌다.

토트넘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내준 끝에 아스널에 2-3으로 졌다. 손흥민은 리그 3경기 골 침묵을 깨뜨렸지만 팀 패배를 막을 수 없었다.

직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이 28일 밤(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리그경기에서 후반 막판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킨 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0-4로 쳐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토트넘은 런던 북부에 함께 연고를 둔 라이벌 팀 아스널에 패해 홈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9패(18승 6무)째를 당한 5위 토트넘(승점

60)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현재 4위는 35경기에서 승점 67을 쌓은 애스턴 빌라(20승 7무 8패)다.

토트넘이 2경기를 덜 치렀으나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승점 7차이는 적지 않다. 게다가 애스턴 빌라의 골 득실은 +21로 토트넘(+15)과 승점이 똑같더라도 이대로라면 역전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토트넘은 앞으로 첼시·리버풀 등 부담스러운 상대를 연이어 만나게 돼 있어 이날 패배가 뼈아프다. 리그에서 16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달 말 루턴 타운과 30라운드 이후 약 한 달 만에 득점 포를 재가동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

로는 통산 리그 18경기, 리그컵 2경기에서 8골 2도움을 올렸다.

토트넘은 후반 19분 센터백 로메로가 페널티아크까지 전진하던 골키퍼 다비드 라야의 킥을 가로챈 후 직접 골까지 넣어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후반 40분엔 VAR 끝에 라이스가 데이비스를 건어찬 장면이 포착돼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 손흥민이 오른발 강슁으로 2-3으로 추격하는 골을 터뜨렸다.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막판 공세를 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남은 시간이 부족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구단 미디어를 통해 "정말 실망스럽다. 후반전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선수들이 잘했지만 모두 더 강해져야 한다. 세트피스 연습을 해야 하며, 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유해란 LPGA투어 LA 챔피언십 '아쉬운 3위'

유해란(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향해 맹추격을 펼쳤으나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 LPGA투어 신인왕 출신인 유해란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월서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

합계 6언더파 278타를 친 유해란은 우승자 해나 그린(호주·12언더파 272타)에 6타 뒤진 3위에 올랐다. 9언더파 275타를 친 마야 스타르크(스웨덴)가 2위를 차지했다. 태극양자들은 올시즌 10번째 대회에서도 승점보를 전해 주지 못했다. LPGA투어 7년 차인 그린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올라 LPGA 투어 통산 5승을 기록하며 우승 상금 56만2500달러(약 7억8000만 원)를 받았다.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이은 올시즌 두 번째 우승이다. 유해란은 올해 아직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주 메이저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5위에 오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